

광산구 징검다리하우스, 주거복지 안전망 안착

민관협력 위기 처한 11세대 지원

LH긴급지원주택 3곳 추가 확보

광주 광산구의 '광산형 징검다리하우스'가 긴급 주거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복지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징검다리하우스는 예기치 못한 재난, 실직,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임시거주플랫폼'이다. 기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광산구의 특화 정책이다. 주거급여수급자 및 긴급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통상적으로 평균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머물 곳이 없거나 300여만 원의 보증금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 돼 왔었다. 광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징검다리하우스 운영에 나서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금호주택 등의 도움으로 신흥동과 송정동에 2개 공간을 마련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1세대가 광산구 징검다리하우스에서 희망을 키워 새 보금자리를 찾아갔다.

일을 하다 손을 다쳐 소득이 끊기고, 노숙을 해야 할 처지까지 내몰렸던 A씨의 경우 광산구 생활보장과 주거복지팀의 도움으로 징검다리하우스에 머물며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폭력 피해를 입어 긴급하게 임시 거처를 필요로 했던 B씨도 얼마 전까지 징검다리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자립기반을 마련 해 새로운 안식처로 자리를 옮겼다. 화재로 가족과 집을 잃거나 과도한 빚으로 살 곳을 잃게 된 세대 등도 징검다리하우스를 거쳐 갔다.

현재는 화재 피해를 입은 1세대가 징검다리하우스에서 생활하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임시주거 공간 제공으로 주거복지의 연속성·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갑자기 닥친 위기로 불안을 겪는 시민의 정서적 안정에도 징검다리하우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광산구는 성과를 발판 삼아 주거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긴급지원주택 3호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다.

올해는 징검다리하우스 2호와 긴급지원주택 3호 등 총 5개 공간을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단기주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 확보로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제납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지원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주택에는 현재 2세대가 머무르고 있으며, 광산구는 각 동의 맞춤형복지팀 등 유관부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 가구를 발굴, 징검다리하우스와 긴급지원주택으로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징검다리하우스 1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더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금호주택 관계자가 징검다리하우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활짝 웃고 있다.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징검다리하우스는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진 광산형 주거복지 모델"이라며 "그 희망의 징검다리가 앞으로도 많은 시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더 적극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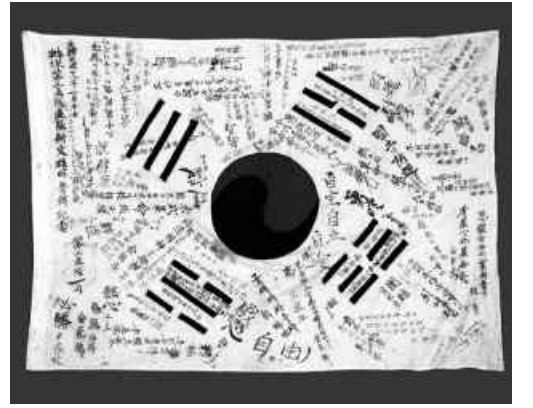
한편 광산구 징검다리하우스는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주거급여수급자, 긴급주거지원대상

자가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으로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많을 경우 한부모, 가정폭력 피해여성, 독거노인 세대를 우선 선정한다. 거주기간은 3개월 이내로 1회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사용자의 임대보증금 부담은 없고(2호는 납입 임대료를 퇴거 시 주거지원금으로 환급), 관리비와 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광산구청 1층 전시



광주 광산구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달말까지 구청사 1층 현관에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전시한다.

광산구가 전시하는 태극기는 1946년 한국광복군 제3지대 2구대에서 활동하던 문웅명(문수열) 선생이 부대를 옮기게 되자 동료 대원들이 서명해 준 태극기로, 한국광복군 대원들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결의를 다지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있다.

태극기 원본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 돼 있으며, 이번 광산구가 계시한 태극기는 독립기념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확대 복제한 것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플라스틱 대신 텀블러 사용

광산구, 자원순환 실천운동

광주 광산구가 일회용품 없는 일상을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 실천 확산에 나섰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카페 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대신 텀블러(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용기내 광산! 자원순환 실천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 텀블러 사용 시 커피 가격을 할인해 주는 카페에 스레기봉투와 친환경경제 등 월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텀블러 사용 및 빨대 사용을 자제한 구민에겐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광산구는 그동안 참여 카페 모집에 나섰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는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 카페를 수시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또 '용기내 광산' 참여 카페들과 대화용컵 사용 및 플라스틱 빨대 미제공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 협약도 추진한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청사 1층에 텀블러 살균 세척기도 설치했다. 지난 9일 설치가 완료된 세척기는 수도물을 전기분해하고 살균수를 생성해 세척기 없이 순수한 물로만 10초 안에 텀블러를 살균·세척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평생학습, 광주를 껴안다’

市, 19~29일 학습주간 행사

시청1층 시민홀·은암미술관

강연·보고회 등 유튜브 중계

광주시는 “19일부터 29일까지 ‘2021 광주 평생학습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평생학습주간 행사는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정보와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교류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광주시가 주최하고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역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는 간소화하는 대신 지역민들이 쉽게 평생학습주간 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19일에는 시청 1층 시민홀에서 ‘평생학습, 광주를 껴안다’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열리며, 유튜브(youtube.com/c/광평원)로 생중계된다.

이날 ‘광주형 TED’ 강연 행사로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해자 원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으며, 24일에는 카페필로소피아 성진기 대표의 강연이 열린다.

강연은 광평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또 26일 오후 3시부터는 광평원 유튜브를 통해 광주형 평생교육 당사자연구 중간보고회가 생중계된다.

이 밖에도 23일부터 29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제6회 광주 문해의 달 기념행사’가 열린다.

송숙란 광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평생학습 주간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현장종사자 노고에 감사”

광주시, 응원캠페인…10개 기관에 감사장·격려 꾸러미 전달

광주시에 코로나19 현장 의료진과 방역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검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관계자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이용섭 광주시장과 시 간부들이 나섰다. 이들은 18일 오후 감염병 전담병원인 보훈병원과 일곡 선별진료소 등 10개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600명(의사 117, 간호사 228, 방역종사자 255명)의 방역 종사자에게 시민의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 광주은행에서 후원한 격려 꾸러미도 제공했다.

광주은행 임직원 등이 직접 제작한 꾸러미는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홍삼, 전복죽, 비타민, 부채 등 17종으로 구성됐다.

보훈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데 감사장을 읽으면서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다”며

“지역사회의 응원에 다시 한 번 힘을 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1차 응원대상에서 빠진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600여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로 감사장과 응원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2차 후원물품은 광주공동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DH글로벌(2000만원 상당)과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순환(2000만원 상당)에서 기부한 성금 4000만원으로 제작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일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있는 의료진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시청 외벽에 ‘당신이 진정한 광주의 영웅입니다’라는 응원 문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게첨하기도 했다.

이용섭 시장은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한편 광주시는 앞으로 일반시민과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응원(칭찬) 릴레이’를 전개하는 등 시민과 함께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